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3월 1일 잠언

1.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려야 주님도 그가 간구한 것을 해 주신다.
2. 가령 천국에 300명이 들어가도록 어떤 건물을 예비하고 지어 놓았다고 하자. 구원받을 자가 아깝게 자기 책임을 못 하여 100명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건물은 100명이 사용하게 된다.
3. 구원받고 천국에 올 자들을 위해 천국에 지어 놓은 건물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올 자들이 예상대로 그 수만큼 안 온다고 해서 없애지 않는다.
4. 천국에는 기본으로 건설한 건물들이 있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행위로 건설되는 건물들이 있다. 만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의 건물이 지어지다가 그의 구원이 상실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니, 다른 사람이 조건을 세우면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삼게 하기도 한다.
5. 주님의 짝사랑의 한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고로 주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 줘야 누구든지 구원도 사랑도 근본이 이루어진다.
6. 짝사랑은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상대도 역시 사랑해 줘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7. 주님은 인간을 짝사랑하신다.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의 사랑의 역사가 이뤄진다.
8.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천국을 상속받지를 못한다.

9. ‘자기 마음’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지불하는 값이다. 천국을 얻는 값으로 ‘자기 마음’을 주께 100% 먼저 지불해야 된다.

<잠언 다시 시작>

1. 모르는 자에게 명예가 합당치 않다.

2. 어린 자에게 큰일을 맡기지 말아라.

3. 10대와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컸지만 굳어지지 않아서 알았다가도 흔들린다.

4. <인간>은 ‘뼈와 살’로 되어 있다. 뼈만 있다면 존재하지 못한다. 살만 있다면 걸어 다니지 못한다.

5. <신앙>은 ‘진리와 은혜’다. 진리만으로는 존재를 못 한다. 은혜만으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

6. 신앙은 진리와 사랑이다.

7. ‘진리’는 길이다. ‘사랑’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